

지
상
발
명
학
교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발명품의 가치는 실용성이 좌우한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공하는 발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상품화되고 이익을 얻는 성공한 발명은 전체 발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발명에 실패하여 전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발명품을 세상에 내어 놓기 위해서는 좀더 각별하고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명광이 되어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크레파스는 너무 잘부러져서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립스틱의 용기와 같이 덮개를 씌우면 부러지지도 않고 손에도 묻지 않으니까 좋을거예요.”

한 주부는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었다. 그리고는 거금을 들여 특허출원까지 마쳤다. 아마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실용적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아이디어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디어 덮개의 가격은 크레파스의 3배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좀더 세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했다.

이와 반대로 실패작이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대단한 히트상품으로 변한 경우도 있다. 잉크를 빨아들일 때 사용하는 압지가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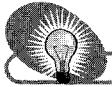
이 압지는 원래 한 제지 회사가 제조 도중에 실수를 저질러서 탄생한 실패작이었다. 보통 종이보다 잉크의 번짐이 심해 글씨를 쓸 수 없었던 것이다. 회사는 이 문제를 두고 오랜 동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 속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잉크가 번지는 것이 심해서 못 쓴다면 차라리 잉크를 흡수하는



데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생각대로 압지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날개 돌힌 듯 펼쳐 나갔다. 이와 같이 발명품은 그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여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가는 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질보다 양이다

‘서툰 포수도 여러 번 쏘면 적중한다.’

이 말은 ‘소발에 쥐 잡기’ 식의 우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는 오히려 여러 번 쏘는 훈련을 하는 중에 명포수가 될 수 있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자주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고 아이디어의 양을 쌓아가다 보면 저절로 발명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많은 발명가들은 모두 대단한 수집광이었으며, 또한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에디슨만 하더라도, 발명을 위해 엄청난 재료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그가 전구를 발명했을 때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는 필라멘트의 적합한 재료를 찾기 위해 금속의 재료 6천종, 동물의 재료 2천종, 식물의 재료 2천종까지 모아서 실험했다 한다. 실로 방대한 양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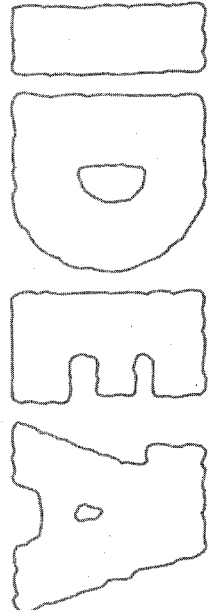
또한 식물 품종개량의 권위자인 버어뱅크도 엄청난 실험량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큰 딸기를 만들기 위해 무려 80만 5천종에 달하는 딸기를 교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식물의 마술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것이다.

“어이구 미련하긴! 80만 5천종의 딸기를 일일이 교배하다니! 적당히 표본을 만들어 재배할 것이지”

물론 이런 의심을 품는 것도 가능하다. 왜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필요없는 실험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방산의 일각만 보고 물속에 숨어있는 그 큰 덩어리를 보지 못하는 반쪽짜리 시각이다.

1온스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 4톤의 광석을 분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발명품을 얻기 위해서는 산과 같은 착상의 양을 쌓아올려야 하는 것이다.



발특9903